2026. 4. 20

금융 Weekly Insight

이번주 은행 1Q26 실적 시즌 시작 – 실적 호조 속 주주환원이 관건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4월 넷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로 은행, 증권, 보험업종 모두 각각 2.5%, 4.0%, 3.8% 추가 상승세 시현. 다만, 주말 중 언론 보도를 보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를 낙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
- 한편, 이번주부터 국내 은행들의 1Q 실적 발표 시작.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개선을 기대하는 가운데, 관건은 1) 대손 부문 하향 안정화 및 가이던스, 2) 금융그룹 산하 증권사의 실적 개선, 그리고 3)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판단.
- Base Case 시나리오 상에서 증권 및 은행의 실적 개선에 초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단기 실적보다는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 빠른 변화 속에서 Re-rating이 가능한 기업에 보다 초점이 필요.

금융 Overview

- 은행 – 국내 은행도 1Q 실적 시즌 시작: 은행주는 2.5% 상승. 지난주 미국 은행들의 1Q 실적 시즌 컨콜에서의 핵심 takeaway는 1) 사모신용 시스템 리스크는 낮고, 2) 유가 급등 영향을 현재까지는 견조한 경제 상황이 흡수하고 있으며, 3) 주주환원은 대체적으로 강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 이러한 가운데, 이번주는 국내 은행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1) 1Q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개선을 예상하는 가운데, 2) 대손 부문 하향 안정화 및 가이던스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업데이트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 Base Case 시나리오 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어 재차 경제 회복 및 이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은행업은 실적 개선 및 주주환원 강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주에 대해 긍정적 시각 유지. 한편, 대형 금융그룹의 증권사 실적은 현재 상장된 증권사들의 실적을 일정 수준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필요.
- 증권 – 증시 반등에 동반 상승: 증권 업종 주가는 4.0% 상승하였으나 KOSPI 지수 대비로는 소폭 언더퍼폼 하였음. 지난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가능성 시사에 따라 증시 반등하며, 증권 업종 또한 반등세를 시현하였음. 증권업종은 5월초 대부분 증권사들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높아진 시장의 기대감을 대부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 관건은 2분기 시장,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증권사 별 운용실적 방어·알파 창출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
- 보험 – 경기 방어적 성격 부각 기대: 보험 업종은 w-w 3.8% 상승하였으나, KOSPI 대비로는 언더퍼폼. 보험업종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 가능성 등 규제 리스크 부각으로 손보주 중심 주가 정체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 가치 부각 등으로 업종 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였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율, 투자손익 등 단기 실적 변동성 요인의 턴 어라운드 확인 여부가 투자 의사 결정의 관건이 될 것.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4/12) 증권사가 금융지주 실적 효자로 급부상** - 주요 금융그룹 내 증권사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신한지주 내 증권 이익기여도는 24년 3.9%에서 25년 7.5%로 증가하였고, NH금융 또한 NH투자증권 이익 비중이 같은 기간 28%에서 41%로 급등. - 금융업 근간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한 결과로 증권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증권사 실적 기여도 개선은 1Q에도 지속:** 26년 1Q 들어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증권사 실적 기여도 개선은 이어질 전망. 특히, 주식중개 수수료 비중이 높은 KB증권, 신한, 하나증권 순으로 이익 기여도가 높을 전망. **자본시장 역할 증대 - 단순 주식중개를 넘어 플러스 알파 필요:** 더 나아가 향후 자본시장의 성장에 따라 IB 역할은 물론 다양한 상품 라인업의 확보도 관건. 예를 들어 M&A 활동의 증가에 맞춰 IB 역량이 관건이 될 수 있고,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발행어음, IMA 등도 증권사의 질적 및 양적 이익 제고에 관건이 될 전망. **결국 증권사의 포지셔닝 강화 및 이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 결국 증권사를 금융그룹 내에서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관건. 단순히 현재의 주식 중개 및 일부 상품 소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자본 및 인력 투자와 더불어 은행 고객 기반을 증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여수신 기능과 증권사의 IB기능의 접목 등의 노력을 기울여 차별화된 역량을 구비토록 하는 것이 향후 관건.
	(4/13) KB뱅크 인도네시아 5년만에 흑자전환 - KB국민은행은 2018년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 지분 22%를 인수하였고 2020년에는 67%까지 올리며 최대주주로 등극. 하지만, 부실 증가에 따른 대규모 손실 인식 등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 - 이에 KB는 체질 개선에 나섰음. 자산 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치고, 기업금융에서는 한국계 고객 전담 조직인 '코리아 링크'를 통해 안정적 자산을 확보. - 소매금융은 연금대출 중심에서 모기지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25년 9월에는 맞춤형 상품인 사탕수수론도 출시. 이는 농가와 제당회사간 납품 계약을 기반으로 수확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구조로 담보대신 현금 흐름 기반 공급망 금융이라는 점에서 차별화. - 결국 인도네시아의 KB뱅크는 25년 첫 흑자 전환에 성공. 더 나아가 동사는 한국계 기업 외에도 현지 대기업과의 거래 기반을 넓혀나가기 위해 노력중인 가운데, 동사는 처음으로 주관하는 신디케이트 론 구성도 앞두고 있음.	**애물단지에서 드디어 흑자 전환으로:** 과거 KB금융에게 있어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은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정도로 적자를 시현한 것은 물론, 향후 회복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컸었음. 특히, 이전의 카자흐스탄 BCC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부코핀에 대한 우려 또한 클 수밖에 없었던 것. 하지만, 지난 해 비로소 흑자 전환에 성공함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향후 실적 개선에 따라 더욱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단순 한국계 은행이 아닌 현지 은행으로서의 성공이 향후 관건:**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음. 현재까지는 신한은행의 베트남 및 일본 사례 이외에는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 더 나아가, 기존의 사업 모델들은 상당 부분이 현지화보다는 현지 주재 한국 기업들 및 관련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의 비중이 컸음. 이에 향후 KB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은행으로서의 성공 여부는 확장성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KB 인도네시아 - 단순히 은행을 넘어 그 이상의 영역으로:** 특히, KB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은행만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열사들이 존재. 증권, 은행, 손해보험, 캐피탈 등이 대표적. 결국 한국에서와 같이 이들 계열사들의 시너지 창출 및 점유율 확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4/13) 은행 ELS 판매 접을까 고심 - 주요 시중은행들이 ELS 판매를 재개하지 않고 완전히 사업에서 손을 떼는 방안을 검토 중. 이는 ELS 판매를 접을 경우 판매 재개를 위한 비용 부담에서 자유롭고, 과징금에 따른 자본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 - 특히, 규제 변화로 인해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위해서는 별도 창구와 전담 인력을 갖춰야 하는 가운데, 불완전 판매 논란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가도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러한 가운데, ETF 등 대체 상품 성장으로 인해 ELS에 대한 관심도 낮아진 상황.	**중위험 중수익 - ELS가 과연 대안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ELS 상품이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던 원인은 은행보다는 기대 수익이 높고, 주식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낮은, 소위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는 포지셔닝이 기여했다고 판단. 하지만, 이후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음. 결국 블랙 스완이 더욱 빈번히 나타나는 증시 환경에서 ELS는 원금 손실 리스크가 월등히 커진 것. 즉, 과거 ELS가 지니던 마켓 포지셔닝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 **"ELS인가 아니면 ETF인가?"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 - 자산관리가 아닌 금융상품 판매에서 초래:** 은행 혹은 금융그룹들이 주장하는 자산관리 영업은 여전히 금융 상품 판매에 머물고 있는 상황. ELS와 ETF 사이의 고민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결국, 잘 팔리는 상품의 소싱이 여전히 중요한 기준임을 방증. 하지만, 은행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은 상품 판매가 아닌, 자산관리. 결국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이에 기반한 자산 배분을 통해 이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자산관리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물론, 이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4/14) 풍선효과로 보금자리론 2개월간 5조원 증가** - 주금공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급증. 1월과 2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총 5.0조원으로 연간 목표액의 25%에 달하는 규모를 채웠으며, 이는 전년 동기 2.5조원의 2배 수준. -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를 적용 받지 않고, 금리도 연 4.35~4.65%로 최근 은행들의 고정형 금리 상품의 최고금리가 7%를 넘어선 것에 비해 낮기 때문. - 지난 21년에도 유사한 현상이 벌어진 가운데, 주금공은 21년 10월 모집인을 통한 보금자리론 판매를 한시 중단한 경험이 있음.	**카카오뱅크 1Q 대출 성장률 호조 기대:** 카카오뱅크가 지난 4Q 중 대출 성장률이 반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보금자리론. 즉, 2월까지 보금자리론 판매가 호조를 보인 만큼, 동사 실적에도 긍정적 기여 기대. 참고로 카카오뱅크가 신규 보금자리론 중 15% M/S를 가져갈 경우 2월까지의 5조원 기준 0.75조원이며, 3월까지는 1조원을 상회 가능한 것으로 추산 가능. **보금자리론은 유동화 상품 -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출 성장 기여는 한계 내포:** 보금자리론은 유동화 상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모인 보금자리론은 유동화 과정을 거치게 됨. 즉, 은행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대출채권으로 처리되지만, 유동화된 후에는 대차대조표에서 소멸되는 구조. 즉,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출 성장은 한계가 있음. 더 나아가 정부가 보금자리론 발행 총액을 관리할 가능성도 고려 필요.
	(4/15) 해외는 은행 규제 완화 통해 제조업 지원 - 한국은 글로벌 흐름에 뒤쳐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현대화를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루겠다고 언급. 이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 기조에서 완화기조로의 전환을 시사. - 실제로 미국은 은행 자본 규제 완화책을 연이어 발표. FED의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리스크 규제 완화와 G-SIB에 대한 자본요건 완화가 대표적. 이에 대형은행들의 자본부담은 4.8%, 중소형은행은 7.8% 감소 기대. - 일본도 경기활성화 위해 은행 자본 규제를 완화 중. M&A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규제 상한을 넘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vs 현재 특정 기업 대출은 은행 기존자본대비 25% 이내로 제한). 이는 AI 및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위함. - 영국도 지난 해 12월 기본 자본 비율 기준치를 종전의 14%에서 13%로 완화. - 반면,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서 뒤떨어진 것은 물론 은행들의 CET-1 비율 또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 결국 경기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금융 규제 운용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 해당 기사는 언급.	**해외 은행들의 규제 완화 지속 - 각국가별로 내수 경기 회복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목적:** 은행들의 CET-1 비율이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 및 거액의 자본이 소요되는 AI, 반도체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서는 은행의 유동성 공급 역할이 필수. 이에 선진국들은 08년 이후 규제 강화 일변도로 진행되어 온 자본비율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 시작. **한국도 규제 완화 가능할까?:** 다만, 한국도 이러한 규제 완화에 동참할 수 있을지는 보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국은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자본비율은 일정 수준 이상을 지켜야 함을 학습. **자본비율 완화 - 은행의 유동성 공급 강화 + Valuation 회복:** 다만, 은행의 신성장 산업 및 관련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와 동시에 여전히 PBR 1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은행주의 Valuation 회복에 대한 니즈 또한 높음을 고려 필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은 자본비율 규제의 소위 '현대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즉, 향후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의 도출 여부가 은행주 Valuation 제고에 있어 관건이 될 전망.
	(4/15) 3월 코픽스 1bp 하락 -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신규 코픽스 금리는 2.81%로 1bp m-m 하락. 2월 중 5bp 반등 후 반락. 잔액기준 코픽스금리는 2.85%로 동일.	**신규 코픽스 금리 하락 - 변동금리부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만, 2월 5bp 영향이 더 크다:** 신규 코픽스 금리 하락은 변동금리부 대출 금리를 전월대비 1bp낮추는 효과가 발생. 다만, 2월 중 이미 5bp 급등한 만큼, 향후 분기 혹은 반기 기준 영향은 여전히 상승 압력이 보다 크다고 판단.
	(4/16) 3년전과 달라진 KB - 회장자격 세부 기준 상시 공개 - KB금융은 지난 14일 1차 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착수. 동사는 25년부터 회장 자격요건 세부기준을 별도 문서로 홈페이지 이사회 공지사항에 공개 중. 매년 상반기 자격요건을 수립,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세부기준 형태로 정리, 공개하는 방식이 정착. 이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 관심은 현 회장의 연임 여부. 견조한 실적과 주주환원, 주가 상승 등을 견인한 가운데, 여전히 변수도 존재.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요건 강화를 추진 중.	**은행 최고 경영진의 가치는?:** 국내 은행들을 되돌아볼 때, 최고 경영진의 역량에 따라 펀더멘털 및 주주가치가 크게 달라진 모습을 확인 가능. 대표적 사례가 KB금융. 2000년대 CFO를 역임했던 윤종규 회장 취임 후 조직 내부 체질 개선 및 적극적인 M&A를 통해 이익 다변화, 안정성 제고, 이익 증대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마침내 업종 내 최고 수준의 시가총액 및 PBR에 거래되는 결과를 창출한 바 있음. **최고 경영진 선임은 주총 결의 사항:** 최고 경영진은 주주들을 대리하여 기업을 경영, 주주가치를 제고 필요. 그리고,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결의를 통해 이러한 최고 경영진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즉, 기업의 최고 경영진 선임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및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경영권의 사유화와 같은 문제 제기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
	(4/18) 홍콩 ELS 과징금 은행 자본부담 10년에서 3년으로 축소 - 홍콩 ELS 과징금으로 금융지주 및 은행이 자본규제 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축소.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99조원의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측. -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금융사고 발생한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책무구조도 개선을 비롯한 재발 방지책 마련 후 금감원장 승인이 필요. - 한편, 정부는 보험업권의 K-ICS 계산 시 정책 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로 하향 조정.	**생산적 금융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 방증:**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일부 규제 완화 필요성도 높은 상황, 금융당국의 일부 규제 완화는 이에 대한 공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4/15) 증권사, 닫았던 '빚투' 빗장 다시 연다…한도 소진 후 재개 본격화** 증시 변동성 확대 시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신규 신용거래를 중단했던 대형 증권사들이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신용거래 재개에 나서는 흐름. 4월 1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1.7조원으로, 역대 최고치(3월 5일 33.7조원) 대비 2조원 감소한 상황에서 관리 가능 수준으로 판단.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대비 100%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 잔액을 운용하며, 최근 증시 반등과 함께 재개 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분석. 다만 일각에서는 변동성 장세 속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리스크 재부각 우려도 제기.	**신용거래 재개는 증권사의 이자수익(신용이자율 연 8~10%) 증가 및 리테일 거래 활성화에 기여:** KOSPI 반등 국면과 맞물린 레버리지 투자 수요 회복은 증권사 실적 추가 모멘텀 가능성으로 판단. 다만 신용잔고 반등 시 증시 하락 국면에서의 반대매매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어, 신용잔고 수준과 증시 변동성 간의 상관관계를 주요 건전성 모니터링 포인트로 점검 필요. 증권사별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여력 차이가 경쟁 환경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 자본 규모 우위 대형사 중심으로 접근이 유효.
보험	**(4/16) 금융당국, 보험사 자본부담 완화…AI·인프라 위험계수 완화, 주담대는 조여** 4월 16일 '제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핵심은 KICS 위험계수 대폭 완화로,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49%→20% 이하, 벤처투자 49%→35%, AI·신재생에너지 인프라 20% 우대 적용. 이를 통해 보험업권에서 최대 24.2조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당국은 추산. 반면 LTV 60~80% 구간 주담대 위험계수는 3.5%→4.0%로 상향하여 자본 배분 방향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	**위험계수 완화는 보험사의 인프라·벤처 투자 확대를 유도:** 자산운용수익 다변화 및 장기 투자 기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KICS 요구자본 부담 완화는 보험사의 자본 효율성 개선 및 배당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주환원 관점에서도 긍정적 기여 가능. 다만 실질적 효과는 1) K-ICS 버퍼 및 부채부담이 덜한 대형사 중심 및, 2) 딜 소싱(인프라·벤처 우량 물건 확보) 능력에 좌우되어 회사별 차별화가 확대될 것.
	(4/14) 차보험료, 인상 두 달 만에 다시 깎나…5·2부제發 '정책 할인' 손보주 직격 당정이 4월 13일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른 운행거리 감소를 근거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을 셋째 주 내 발표 예고. 5부제 자율 참여자 대상 별도 특약 신설 방향이 유력하며 보험개발원이 요율 산정 중. 손보사들은 올해 1~2월 기준 주요 4개사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 86.7%로 손익분기점 80%를 이미 상회. 올해 1.3~1.4% 인상 후 두 달 만의 인하 압박으로 업계는 난색.	**자동차보험료 정책 인하는 손보사 투자심리에 추가 악화요인:** 특약 방식의 선택적 할인이 확정될 경우 전면 인하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나, 투자심리 측면에서는 규제 리스크 부각으로 비우호적.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강도 여부가 1Q26 실적 발표의 핵심 체크 포인트.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4-20 (월)		독일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일본 2월 3차산업지수 중국 4월 대출우대금리(LPR) 발표
2026-04-21 (화)	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미국 3월 소매판매 미국 3월 잠정주택판매지수 미국 2월 기업재고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독일 4월 ZEW 경기기대지수
2026-04-22 (수)	금감원장, 8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오찬 간담회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2월 인구동향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미국 20년 만기 국채 입찰 영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영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026-04-23 (목)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미국 3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4월 합성·서비스업·제조업 PMI 예비치 미국 4월 캔자스 연준 제조업지수 유로존 4월 합성·서비스업·제조업 PMI 예비치 독일 4월 합성·서비스업·제조업 PMI 예비치 영국 4월 CIPS / S&P 글로벌 합성·서비스업·제조업 PMI 예비치 영국 3월 공공부문 순차입/순상환 일본 4월 서비스업·제조업 PMI 예비치
2026-04-24 (금)		미국 4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독일 4월 IFO 기업환경지수 영국 3월 소매판매

자료: 삼성증권

Company event	국내	해외
2026-04-23 (화)	KB금융, 신한지주, JB금융지주 실적 발표	
2026-04-24 (수)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실적 발표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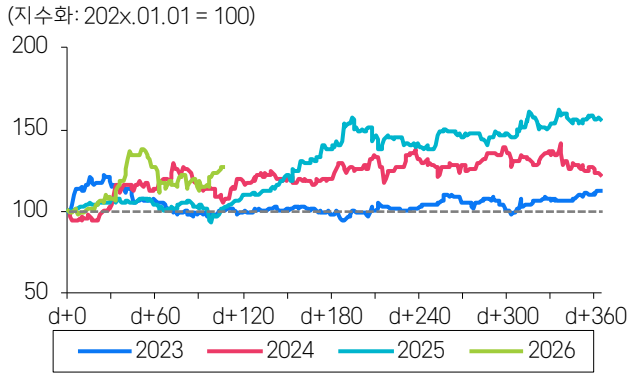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4,924.3	6,191.9						5.7%	4.5%	150.6%	46.9%
	KRX은행	213.7	1,653.1						2.5%	5.0%	96.2%	26.8%
	KRX증권	99.8	2,847.4						4.0%	2.0%	277.2%	86.1%
	KRX보험	103.3	3,344.2						3.8%	(2.5%)	95.8%	24.9%
	결제 지수**	1.624	n/a						14.5%	4.9%	81.8%	23.7%
은행	KB금융	60.5	162,300	57.1	1.0	11.4	8.8	12.9	2.5%	4.9%	102.1%	30.2%
	신한지주	47.3	99,600	53.6	0.9	10.4	8.5	15.5	0.9%	4.8%	111.2%	29.5%
	하나금융지주	34.4	123,500	49.7	0.8	10.6	7.7	12.2	3.3%	7.9%	114.0%	31.2%
	우리금융지주	26.2	35,700	41.4	0.8	10.5	7.5	11.7	4.5%	6.6%	116.4%	27.5%
	기업은행	18.0	22,550	36.0	0.6	8.5	6.9	2.2	0.9%	(5.5%)	56.2%	7.6%
	BNK금융지주	5.9	19,160	45.1	0.5	8.3	6.8	9.5	3.8%	2.1%	91.4%	20.7%
	JB금융지주	5.8	31,000	42.2	0.5	9.5	5.6	21.9	0.2%	1.5%	79.3%	20.9%
	iM금융지주	3.0	18,700	51.8	1.0	13.2	7.7	6.6	3.4%	10.1%	100.6%	20.3%
	카카오뱅크	12.1	25,350	50.0	1.6	8.8	19.5	29.1	0.4%	3.5%	20.7%	17.4%
증권	미래에셋증권	39.1	70,400	60.9	2.7	12.9	22.0	17.5	5.9%	0.7%	655.4%	202.8%
	NH투자증권	12.6	35,300	41.1	1.4	12.9	11.2	14.9	3.7%	3.2%	168.2%	67.3%
	한국금융지주	14.3	257,000	25.0	1.2	14.2	9.7	-19.1	6.4%	6.6%	265.1%	58.9%
	키움증권	11.7	448,000	29.5	1.6	20.7	9.0	26.4	(1.1%)	(4.5%)	283.6%	54.7%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9.9	117,700	50.0	1.7	22.8	8.2	14.9	1.8%	1.6%	3.7%	4.1%
	삼성화재	21.4	480,000	45.1	1.0	10.1	10.9	12.0	2.2%	(2.8%)	36.2%	(3.4%)
	삼성생명	50.7	253,500	46.3	0.6	3.7	15.9	17.8	8.1%	7.9%	219.3%	60.9%
	DB손해보험	12.0	173,300	32.3	1.1	16.6	6.6	9.0	2.4%	(8.7%)	105.1%	32.2%
	한화생명	4.3	4,900	16.4	0.3	5.6	6.3	37.8	2.6%	(6.7%)	98.0%	50.5%
	현대해상	2.7	30,400	11.7	0.5	17.5	3.3	18.3	(0.2%)	(3.8%)	47.9%	(1.3%)
결제	카카오페이	7.7	56,700	n/a	n/a	5.6	76.3	57.5	6.8%	(7.0%)	90.6%	15.5%
	NHN KCP	0.8	20,400	n/a	n/a	17.2	14.6	16.1	19.9%	2.1%	158.2%	36.8%
	KG이니시스	0.3	11,520	n/a	n/a	7.5	5.3	5.5	8.2%	9.2%	35.8%	12.7%
	KG모빌리언스	0.2	5,430	n/a	n/a	10.7	5.1	8.1	6.7%	8.7%	28.7%	15.5%
	나이스정보통신	0.3	28,100	n/a	n/a	9.2	6.0	29.7	13.3%	5.6%	54.5%	10.8%

참고: 4/17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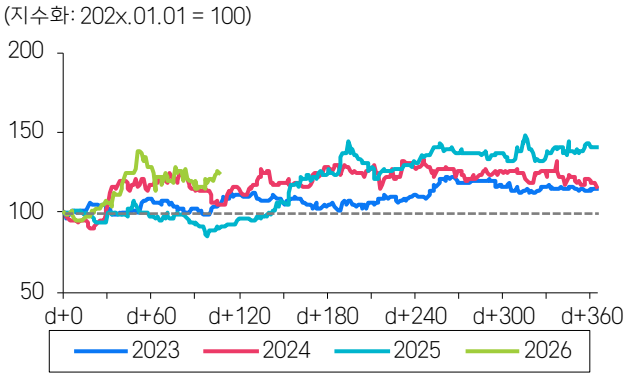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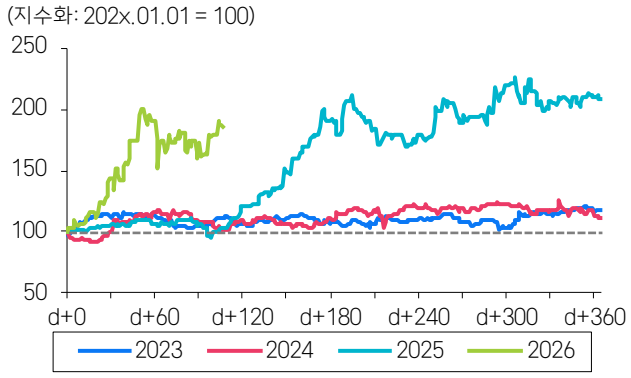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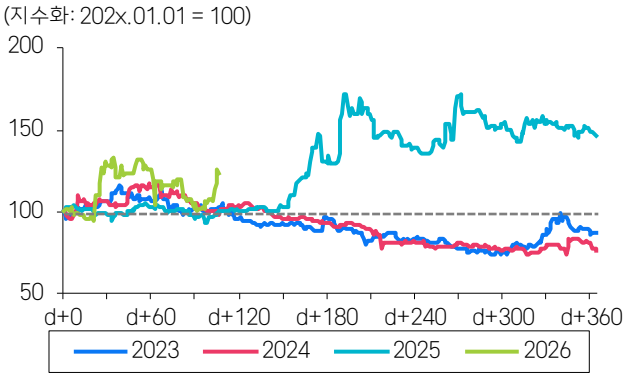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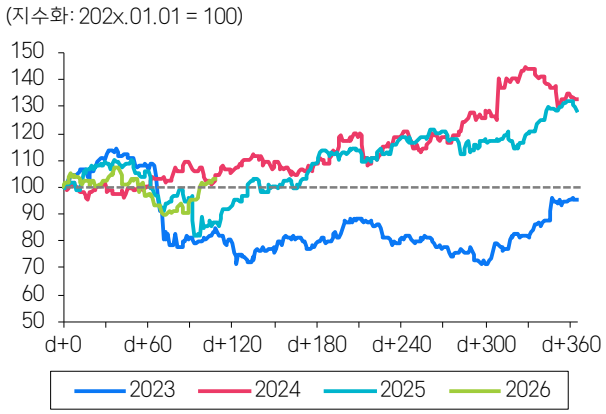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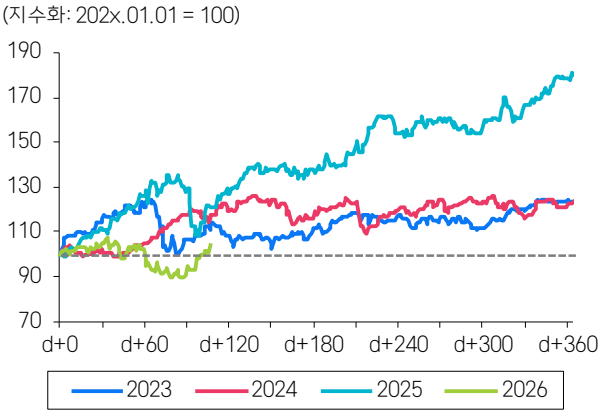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32.3	80.3	2.3	17.0	14.0	10.7	0.1	7.8	33.8	(3.7)
		Bank of America	385.2	104.4	1.3	11.5	12.2	16.3	2.6	14.7	44.1	(2.0)
		Citigroup	226.7	118.2	1.1	9.5	12.4	52.9	6.3	20.3	109.0	13.3
		Wells Fargo	249.5	96.3	1.4	12.8	11.7	11.6	(4.7)	6.6	25.8	(12.7)
		PNC Financial	90.4	75.0	1.5	12.8	12.2	10.7	1.7	11.3	47.6	7.7
	유럽	Banco Santander	190.5	64.6	1.5	13.5	10.5	9.6	5.0	19.4	85.8	9.7
		Unicredit	127.2	83.7	1.6	16.7	9.7	4.9	4.8	20.4	43.9	1.3
		BBVA	134.4	86.0	1.9	18.9	10.0	15.3	3.1	13.3	71.2	1.3
		ING Group	84.6	79.9	1.4	13.0	10.7	6.1	0.3	12.5	50.8	3.5
		Lloyds	83.1	85.3	1.4	13.4	10.2	43.2	4.2	13.3	49.5	7.0
		Barclays	83.8	65.3	0.9	10.6	9.1	20.4	2.7	18.7	63.3	(4.9)
	일본	Mitsubishi UFJ FG	214.2	60.8	1.5	10.8	14.7	22.3	1.0	6.9	70.3	15.1
		Sumitomo Mitsui FG	134.7	53.9	1.4	10.8	13.5	37.6	1.1	8.6	73.3	11.0
		Mizuho FG	106.0	67.2	1.5	11.4	13.9	38.9	(0.3)	10.0	95.2	18.7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72.1	30.5*	0.6	9.0	6.9	2.2	0.9	6.5	31.4	11.8
		China Construction Bank	295.7	29.8*	0.6	9.4	6.6	0.6	2.7	7.4	30.1	12.9
		Agricultural Bank of China	354.3	30.8*	0.7	9.7	7.5	3.1	4.5	12.7	34.1	4.7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23.4	N/A	1.4	6.0	22.6	(32.4)	(1.2)	(1.6)	(8.6)	(5.7)
		AIG	42.1	77.0	1.0	10.1	10.4	흑전	2.4	6.5	(3.0)	(8.0)
		Travelers Insurance	64.0	77.3	1.8	18.3	10.6	3.7	1.2	1.3	17.6	3.7
	유럽	Allianz	174.2	80.7	2.3	18.5	12.7	11.2	3.4	12.2	12.0	(0.1)
		AXA	104.7	58.9*	1.9	17.1	10.5	(10.0)	3.7	13.1	7.9	4.1
		Generalli	68.3	59*	1.7	14.1	12.2	11.4	4.5	12.5	21.5	4.9
	일본	Tokio Marine	84.3	40.3*	2.5	19.7	12.9	(1.1)	(2.3)	14.9	31.0	19.2
		Daiichi Life Insurance	33.2	58.8	1.4	12.4	12.7	(0.8)	(1.5)	4.3	57.9	12.0
	중국	Ping An Insurance	148.2	36.2*	1.0	13.9	7.6	4.1	(3.4)	(1.9)	38.4	(7.0)
		China Life Insurance	140.9	19.9*	1.2	19.6	6.1	(16.3)	2.1	(1.5)	102.8	1.3
		PICC P&C Insurance	41.0	39.2*	1.0	13.7	7.6	4.3	(2.6)	(5.3)	5.1	(11.9)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83.8	104.2	2.5	16.3	15.6	15.9	2.0	14.4	81.7	5.3
		Morgan Stanley	298.3	72.6	2.7	17.6	16.0	15.6	6.3	19.1	72.9	6.4
		Charles Schwab	165.1	98.5	3.4	22.6	15.9	24.8	(2.7)	(1.8)	21.2	(7.6)
		Robinhood	81.8	45.7	7.8	20.5	42.4	4.3	31.2	22.4	120.4	(19.8)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27.5	80.5	6.5	34.8	18.9	14.3	5.8	12.5	32.0	(10.3)
결제	미국	VISA	618.8	21.7*	15.0	60.6	25.0	24.2	4.2	5.8	(3.8)	(9.6)
		MasterCard	465.0	17.6*	42.4	191.9	27.0	16.8	4.5	6.1	0.8	(8.7)
		PayPal	45.7	5.5*	2.2	23.0	9.8	(3.9)	12.3	15.0	(16.7)	(13.0)
	유럽	Adyen	36.5	0*	4.7	21.4	25.0	17.2	14.7	14.1	(29.7)	(28.4)
핀테크	미국	Block	42.7	0*	1.8	9.6	22.8	48.7	14.6	20.8	32.2	9.5
		Upstart	3.3	0*	3.7	20.7	32.9	133.3	26.8	29.1	(15.5)	(20.9)
		Affirm	21.5	0*	5.5	10.4	58.8	630.8	32.9	45.2	53.2	(13.3)
	중국	LuFax	1.6	N/A	0.0	N/A	(0.7)	흑전	0.5	(14.1)	(19.9)	(26.2)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4/17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